



반환점 돈 신인왕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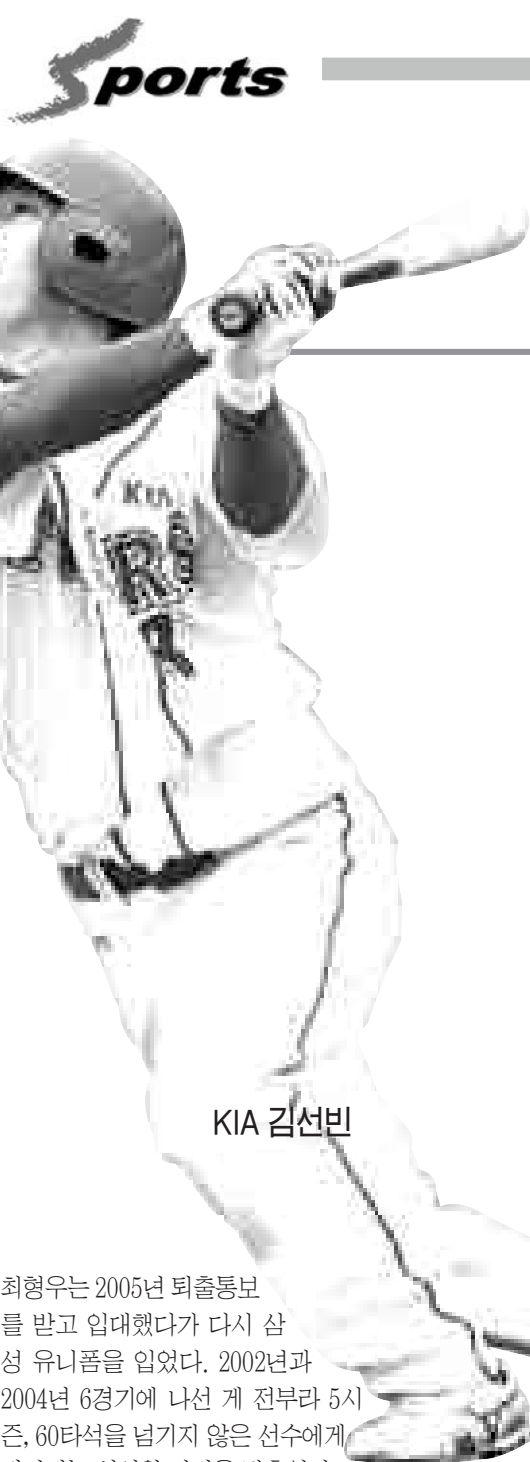
삼성 최형우



LG 정찬현



두산 김재호



KIA 김선빈

KIA 김선빈 '고속질주'

삼성 최형우 "나도 간다"

'반환점을 돈 신인왕 경쟁'

지난 3월29일 프로야구 개막전에는 15명의 신인이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며 2008시즌 풍성한 신인들의 잔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프로야구 반환점을 돈 22일 현재 그라운드에서 부는 신인 바람은 예상보다 미약하다.

김선빈 타율 0.257, 출루율 0.357

7년차 최형우 타율 0.291, 40타점

LG 정찬현·두산 김재호 등 가세

졸었다. 164cm의 키로 프로야구 최단신 김선빈은 뛰어난 야구센스로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최형우는 2005년 퇴출통보를 받고 임대했다가 다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2002년과 2004년 6경기에 나선 게 전부라 5시즌, 60타석을 넘기지 않은 선수에게 해당되는 신인왕 자격을 갖추었다.



한국, 월드컵 금메달 3관왕... 한국 여자 배구팀이 2008년 세계 배구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했다.

광주은행 이애라 3관왕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

여자부 75kg급

한국 여자 역도의 기대주 이애라(18·광주은행)가 2008 세계 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첫 3관왕을 올렸다.

공효석 첫 구간 3위 질주

조선대 김지홍 대통령기정구銀

투르 드 코리아-재팬

'투르 드 코리아-재팬 2008' 일본 구간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공효석(22·서울시청)이 첫 도로구간 3위에 올랐다.

김지홍(조선대 4년)이 제4회 대통령기 전국장애인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KIA타이거즈기 호남 중학야구 개막

23일부터 7일간 무등야구장 광주, 전남·북 10개교 참가

찬호 최고 구속 154km

박찬호(35·LA 다저스)가 최고 시속 154km짜리 공속구를 앞세워 삼진을 9개나 잡아내는 역투를 펼쳤지만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지며, 최우수선수 상 등 10개부분 개인 상 수상자에게는 글러브와 야구화 등의 상품이 수여된다.

KIA 타이거즈가 호남지역 아마 야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제 2회 KIA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야구대회'를 개최한다.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districts in Gwangju, including Daegu, Daegu, and Gwangju. Advertisements include details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지공인중개사', '금보부동산컨설팅',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ad lists specific properties, prices, and services.